

“신불자 체크카드 서비스 차별 없애겠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광주서 서민금융 애로 청취

보증 및 담감·불법 채권추심 해소 호소

“연대보증 및 5년내에 없애도록 하겠다”



서민금융 현장 점검에 나선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9일 광주 동구 우리은행 광주주부부 8층 강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서민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제가 쓰지 않은 돈인데...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줄 수는 없을 까요.”

19일 오후 광주 동구 대인동 우리은행 8층 광주주부부 강당에서 열린 ‘김석동 금융위원장과의 함께 하는 1박2일 서민금융 현장속으로’에 참여한 서민들이 김석동 금융위원장에 쏟아낸 요구사항들이다.

김 금융위원장은 “광주지역 서민금융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종휘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장영철 자산관리공사 사장, 이정하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장, 송기진 광주은행장 등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책임자와 서민금융 이용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연대보증으로 10년 넘게 ‘빛의 덫’에 시달리고 있다는 성 모씨는 “1억 2500만원에 대한 보증을 썼는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모두 5억 넘게 지급

까지 갚아오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빚을 갚고 있지만 내가 쓴 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빚을 탕감해 줘야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순호 신복위 제도기획부장은 “보증채무의 경우 채권 상환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 경우 원금에 대해 50%까지 탕감해주고 있다”며 “소득이 줄거나 목돈이 필요할 경우 신복위의 상담을 통해 변제금액을 줄이거나 상환기간 연장 등 생계에 맞게 채무를 재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원시 금융의 표본인 연대보증이 더 이상 금융시스템에서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과거에 연대보증한 부분을 빨리 없애야 하는 데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연계된 것이므로 5년을 두고 정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신용회복 중인 참가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 주유소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체크카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나 역시 체크카드를 쓰

고 있다”며 “체크카드에 대한 서비스 차별을 없애겠다”고 응답했다.

또 캐피탈사의 불법 채권추심에 고통 받은 사원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불법채권추심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에 와서 보니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특단의 대책을 취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서민지원 금융제도를 연령대나 생애주기를 고려해 다양하게 상품을 개발해달라” “대부업체들의 무분별한 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달라” 등 다양한 주문을 쏟아냈다.

한편 장영철 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새희망네트워크(www.hopenet.or.kr) 사이트에서 개인 신용상태도 무료로 확인할 수 있고 각종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정보도 찾아볼 수 있다”며 “1조4000억원이라는 대출재원이 마련돼 있으니 많은 이용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앙드레김 도자기’ 한국도자기(주)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앙드레김 아틀리에에서 디자이너 앙드레김의 작품세계가 담긴 도자기를 선보였다. /연합뉴스

주택매매 회복세...2월 거래 1월 2배로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가 전달보다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5141건으로 전월(2만8694건)보다 2만6447건 늘어 2배로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 매매량이 6060건으로 집계돼 전달(3284건)보다 2776건이 늘었다. 경기도는 1만771건, 인천은 2364건으로 전달보다 각각 5704건, 1168건이 증가했다.

지방은 지난달 3만5946건의 주택이 거래돼 1월(1만9147건)보다 1만 6799건이 늘었다.

특히 대전은 증가폭이 가장 커 전달보다 약 2.6배로 매매가 늘었으며

충남과 울산도 약 2.5배로 증가했다.

2월 주택 매매량은 취득세 감면혜택이 끝나 거래량이 급감했던 지난 1월에 비해서는 크게 늘었지만 매수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작년 같은 달보다는 거래량이 감소했다. 2월 매매량은 작년 같은 달보다 전국기준으로 28.4% 감소했다. 수도권은 36.8%, 지방은 22.9% 각각 줄었다.

서울의 매매량은 작년 2월(9787건)보다 38.1%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같은 달보다 36.2%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전국 다세대·연립 주택 거래량도 4% 줄었다. 전국 단독·다가구 주택 거래량은 6.8% 증가했다. /연합뉴스

광주고용노동청 지역 고졸자 취업지원 강화

광주고용노동청은 19일 광주·전남 지역 고졸(예정)자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깊어지고 있는데도, 지역의 청년 고용률(지난해 4/4분기 광주 38.1%, 전국 40.2%)이 낮아 고졸(예정)자 채용을 희

망하는 기업과 취업 희망 학생을 이어서 위한 방안이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올해 8월까지 고졸(예정)자를 진로지도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9월 이후에는 1대 1 취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연임...상근부회장은 누구?

차관보급 중앙인사 등 7~8명 물망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임기 만료된 전영복 상근부회장의 후임에 누가 임명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주상의는 오는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제21대 회장 및 부회장(5명), 상임의원(20명), 감사(2명) 등 임원을 선출한다. 또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전 상근부회장의 후임 임명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임명권자인 박 회장이 아직까지 상근부회장을 낙점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의원총회에서 임명될 지는 미지수다.

박 회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광주상의 위상 제고나, 능력 위주냐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젊어지는 조직을 위해 지나친 고령을 피하려 한다”면서 “그동안의 성과보다는 앞

으로의 가능성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상근부회장은 공무원 출신이 많아왔다. 광주상의 회장이 임명하지만 지자체와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해 광주시장의 의중을 상당히 반영해 왔다. 임기는 3년이지만 통상 선출직인 회장과 임기를 함께 하고 있다.

박 회장은 차기 상근부회장 후보로 7~8명의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인사로 최종만(56)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과 임우진(59)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오행원(65) 전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조용진(59) 전 광주시 기획관리실장 등이 거명되고 있다. 또 차관보급 고위공무원을 지낸 중앙인사 1~2명도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최정장은 고위공무원으로 광주상의

의 위상 강화에 적임인데다 과거 박 회장이 여러차례 상근부회장을 요청한 적이 있어 유력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 최 정장도 후진을 위해 임기가 1년 남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직을 사퇴할 뜻을 비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 전 사장은 1급 출신이 아닌 점이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두차례 연임하면서 뛰어난 경영능력을 보여준데다 박 회장과 고교 선우배라는 인연이 있다.

이 전 행정부시장은 1급 고위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조 전 기획관리실장은 8급 지방기계에 있어서 이사관(2급)까지 오른 특성과 저력이 강점이다.

이밖에 광주상의 위상 제고를 위해 차관보급 이상 중앙인사 1~2명정도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2월 부도업체 수 역대 최저

신설법인 수는 3개월째 6000개 넘어

2월 부도업체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신설법인 수는 3개월째 6000개를 넘었다.

한국은행이 19일 내놓은 ‘2012년 2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을 보면 부도업체 수(법인+개인사업자)는 9개월 전월 103개보다 9개 감소했다.

이는 199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작은 수치다. 기존 최저치는 2011년 7월의 96개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부도업체가 전달보다 16개 줄었다. 서비스업은 3개 늘었고 제조업은 전달과 같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7개 늘어났으나 지방은 16개 감소했다.

신설법인 수는 3개월째 6천 개를 넘었다. 2월 중 신설법인인 6439개로 전달보다 434개 늘었다. 지난해 12월 신설법인 수는 6645개였다. 이에 따라 부도법인 수에 대한 신설법인 수의 비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월 중 전국 어음부도율(전자결제

조정 후)은 0.01%로 1월 0.02%보다 0.01%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방 건설업체 부도가 전달보다 15건 줄며 전체 부도업체 수가 감소했다”며 “신설법인 수가 늘어나는 것은 은퇴한 50~60대 베이비붐 세대들이 창업에 나서면서 생긴 현상이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2,047.00 (+12.56)
▲ 코스닥지수	539.83 (+0.05)
▲ 금리(국고채 3년)	3.62% (+0.03)
▼ 원·달러 환율	1,122.30원 (-3.6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Le **쿠스쿠스** 패밀리레스토랑

중이 울리면 따뜻한 음식이 나옵니다.
당신께 드리는 **맛의 사치**

2012년 CUSCUS ART HOUSE



쿠스쿠스 패밀리레스토랑

광주 수원점
광주 신세계점
광주 상무점

062-371-0011 062-360-1981 062-383-3839

쿠스쿠스 광주 수원점
 체인점문의 062-371-0011
 체인점지역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광주상무점 OPEN!